**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ㆍ재정구조조정을 위한 임시제직회:** 다음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ㆍBible12(성경개관) 3강:** 11월 10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ㆍ매일성경 11,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ㆍ지난 주 방문:** 박인자

**ㆍ입원:** 황선우(Evangelisches Krankenhaus Düsseldorf 311호)

**ㆍ생일:** 손하음, 김에스더, 심옥근, 이미전

**ㆍ손교훈 목사:** 오늘 15시 부퍼탈한인선교교회 장로장립식 설교

10/28-30 얀 후스 종교개혁지 탐방(체코)

**◆말씀일기 일정**

일/유1:17-25 월/시127:1-5 화/시128:1-6 수/시129:1-8

목/시130-131 금/시132:1-18 토/시133-134 일/시135:1-2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66독, 송인선 권사 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0월 27일** | **11월 3일** | **11월 10일** | **11월 17일** |
| **예배기도** | 박성희 | 이미전 | 단주현 | 강일구 |
| **말씀일기** | 박희영 | 오지훈 | 손재호 | 석호선 |
| **안내위원** | 한상철, 예배부 | 정기승, 예배부 |
| **헌금위원** | 김영희, 민경웅 | 민명희, 박성호 |
| **애찬봉사** | 밥상 셋 | 밥상 넷 | 밥상 다섯 | 나라주일 |

**36-44호 2019년 10월 27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14:27)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신동철 목사** HP. +41-77-816 5678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종 교 개 혁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12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04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07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 박성희 집사박희영 집사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막11:15-17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한 교회**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585장 …………………….…………공동기도/Gebet ……........……………………………………………….......................봉헌/Kollekte ……………………………………………………………………………………… | 다 함 께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종교개혁주일에 드리는 공동기도문** ▶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타락한 목회자나 성도들의 돈, 성, 세습의 문제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상처와 얼룩이 짙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젖줄인 교회를 떠나며, 많은 이들이 절망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으로 종교개혁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루터, 칼빈, 츠빙글리를 비롯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여전히 물질 맘몬에 사로잡혀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어둠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대물림 하려는 세습이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고, 수많은 죄악을 합리화 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교계에서 득세하고 흥왕합니다. 공교회성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이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폐쇄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개혁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라는 다섯 가지 외침을 망각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목회자를 목회자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민족의 분단과 분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 좌우 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양극화 사이에서 상호책임지고 화평케 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밀알이 되는 교회,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성경적 신앙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 우리 선교교회가 나라와 민족, 온 세계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